

1940년대 文載道の 문체의 선택과 그 창작심리*

— 《古今》에 실린 글을 중심으로

金多正**

<목 차>

1. 들어가며
2. '개인'으로의 침잠과 문체의 선택
3. '회고'적 성격의 글쓰기
4. 나오며

1. 들어가며

1940년대의 복잡했던 역사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문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上海가 일본에 의해 전면적으로 점령되고 上海에 남기로 선택한 문인들은 공포정치에 시달려야 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뿐만 아니라 적의 통치 하에서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에게 협력했다는 오해를 받아야 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마다의 생존방식을 찾아야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합리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야 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제재가 극도로 제한된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글을 통해

* 본 논문은 2016년 1월 30일 '2016年 新加坡—韓國青年學者華文文化國際學術論壇'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이 연구 성과는 2016년도 BK21플러스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 교육·연구 사업단의 참여학생으로서 작성한 것임.

** 高麗大學校 中日語文學科 博士課程

자아를 표현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당시 上海의 상황은 그들의 글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산문 창작은 오히려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두었다. 그것의 제재는 인간 본연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소소한 일상에 대한 단상,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 전통의 재발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古今》은 上海가 완전히 점령된 후 발간된 첫 간행물이다.¹⁾ 여기에 실린 글의 대부분은 문사류(文史類) 산문이 주를 이루었으며 농후한 회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古今》이 성공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던 것은 《古今》의 발행인이었던 朱樸과 汪精衛 정부 인사와의 인맥에 기댄 바가 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

《古今》은 1944년 10월 정간되기까지 上海 문인들이 합법적으로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었다. 《古今》은 《風雨談》(柳雨生 主編), 《天地》(蘇青 主編) 등 잡지와 함께 윤함구 산문 창작의 붐을 주도했지만 ‘한간잡지(漢奸雜誌)’로 지목된 탓에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친일문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정치와 무관한 작품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었고,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古今》과 그 작가들 역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古今》과 汪精衛 정부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정치와 무관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여겨진다.

文載道(1916~2007, 본명 金性堯)는 《古今》을 연구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작가로 1940년대 윤함구 산문 창작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시에 그는 周作人의 풍격을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古今》

1) 《古今》은 1942년 3월에 창간되어 1944년 10월까지 총 57기를 발행했다.

2) 《古今》 발행인인 朱樸은 일찍이 잡지 편집을 맡거나 서점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 이었고, 굉장한 장서가이기도 했으며 汪精衛 정부에서 관직 생활을 했었다. 그는 1940년 처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관직에서 물러났고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름을 잊고자 《古今》을 창간했다고 한다. 朱樸은 《古今》 제1기 '발간사'에 그가 《古今》을 창간하게 된 연유에 대해 자세히 적고 있다. 曹琛, 《異度空間的浮沈: 《古今》文人心態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13-16쪽 참고. 朱樸, <創刊詞>, 《古今》創刊號, 周黎庵主編, 《古今》(影印本)(第1卷), 揚州: 廣陵書社, 2009, 2쪽.

》에 글을 투고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잊혀졌다.

文載道는 1941년 말 아내와 함께 당국에 체포돼 고초를 겪고 풀려난 후 절필을 하게 된다. 文載道는 1942년 12월 《古今》에 글을 기고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문단으로 돌아왔고, 《古今》이 정간되기까지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인 발언을 더는 하지 않았고 다른 제재로 관심을 돌렸다. 그가 다시 창작을 재개하게 된 데에는 가장으로서 당장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절박함과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한데 뒤엉켜 있었다고 할 수 있다.

文載道の 창작은 그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요구 역시 반영하고 있다. 문체나 제재의 선택은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들 역시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의 이 시기 작품에는 당시의 특징들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고에서는 《古今》에 실렸던 文載道の 작품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국내에서의 윤희구 관련 연구 성과는 이미 상당하지만 文載道에 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2. '개인'으로의 침잠과 문체의 선택

1941년 12월, 上海는 일본에 의해 전면 점령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발언은 탄압의 대상이 되었고 작가들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검열과 탄압은 집요하고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 작품에서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이들은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도 고의로 지가 상승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잡지의 발간을 적절히 통제했다.³⁾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시

3) 錢理群, <上海淪陷區文化厄運>, 陳子善 主編, 《中國現代文學編年史: 以文學廣告爲中心

적으로 주춤했던 잡지 발간은 이내 곧 활기를 되찾았다. 물론 여기에 문화정책도 한몫했다. 처음에는 통제가 이루어졌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곧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흥거리를 허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적극적인 발언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가벼운 읽을거리와 오락잡지 등이 독자의 인기를 끌었다. 《古今》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잡지들이 잇달아 발간되며 윤함구 산문 창작은 일시적인 성황을 이루었다.

楊佳嫻은 윤함구에서 文載道를 비롯한 신진작가들이 대거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전쟁으로 당시 문단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고 있던 작가들 대부분이 上海를 떠나 후방이나 전방으로 가게 되었지만 上海에서 발행된 간행물들은 여전히 지면을 채워야했고, 그들이 떠난 빈자리를 메워야 할 작가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기성작가 및 신진작가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이다.⁴⁾

물론 이렇게 등장해 일시적으로 인기를 얻었던 작가의 대부분은 전쟁이 끝나면서 더 이상 작가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이들 작가들의 창작 수준이 뛰어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급변한 사회적 상황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적막했던 上海 문단에서 이러한 작가들이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고, 그 창작 수준이 어떠한 간에 그들이 일시를 풍미할 수 있었던 '현상' 자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文載道 역시 이러한 기회를 통해 문단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다. 그가 유명해지고 세간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周作人의 인정과 평가였다. 그리고 그 나름의 자각적인 문학 실천을 했다는 것, 비슷한 유의 작품을 창작했던 여타 작가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겠다. 文載道의 작품은 《古今》이 지향하는 풍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이러한 풍격은 곧 윤함구에서 한동안 적잖은 인기를 끌었다.

1937-1949》,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215-218쪽.

4) 楊佳嫻, <日本占領下的上海文化環境>, 《懸崖上的花園: 太平洋戰爭時期上海文學場域(1942-1945)》,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2013, 63-137쪽.

산문 창작이 上海에서만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니었다. 北京 역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기에 《古今》은 上海에서 발행되었음에도 北京에서도 환영을 받았고, 周作人을 비롯한 北京의 문인들 역시 여기에 적극적으로 글을 투고했다.⁵⁾ 周作人의 《古今》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가는 참고할 만하다.

北京에서 《朔風》 이후, 문예 간행물이 점차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上海에는 《古今》·《雜誌》·《風雨談》 등이 있었다. 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많이 쏟아져 나와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간행물의 내용과 그 성취는 일일이 세세하게 분석해보지 않아도, 그것들이 고생을 겪고 굴욕을 감내하면서도 중국 문화의 부활을 위해 노력한 정황만 보아도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중화민족의 생활력의 강인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⁶⁾

위 글을 보면 周作人이 《古今》을 포함한 上海에서 발간된 간행물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이들 간행물이 중국 문화의 진흥을 위해 쏟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周作人은 1920년대에 이미 유교에 대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그가 유교에 대해 눈에 띄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은 친일 행보를 걷게 된 후였다. 물론 여기에는 그 나름의 일관된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었다. 周作人은 유가에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끌어내 그것을 외부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사상적 무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여기에

5) 北京 문인으로 《古今》에 글을 투고한 이로는 周作人·徐一士·瞿兌之·謝興堯·沈啓無·紀果庵 등이 있다. 上海 문인으로는 周黎庵·潘子且·陶亢德·柳雨生 등이 있고, 蘇靑과 張愛玲도 《古今》에 작품을 몇 편 게재했다. 蘇靑은 《古今》과 유사한 성격의 잡지인 《天地》를 발간하기도 했다. 《古今》의 발행인 朱樸이 <小休辭>를 통해 정간 의사를 표명했을 때 周作人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은 정간 소식에 상당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朱樸, <小休辭>, 周黎庵 主編, 《古今》(影印本)(第4卷), 揚州: 廣陵書社, 2009年, 433쪽. (原載: 《古今》第57期.) 본 논문에서의 인용문은 周黎庵 主編, 《古今》(影印本)(1-4卷), 揚州: 廣陵書社, 2009年版을 참고했음을 밝혀둔다.

6) “在北京, 自《朔風》以後, 文藝刊物逐漸出來, 上海方面則有, 《古今》, 《雜誌》, 《風雨談》等, 還有些我們所不會見到的, 出得更多也更熱鬧. 這些的內容與其成績, 且不必細細分解, 就只看這吃苦忍辱, 爲希求中國文化復活而努力的情形, 總之可以說是好現象. 這豈不既是中華民族生活力強韌之一種表示麼?” 周作人, <文載道文抄序>, 《立春以前·周作人自編集》,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2, 195-196쪽.

는 ‘문화민족주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⁷⁾ 그런 周作人이 있기에 《古今》과 같은 성격의 잡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古今》은 여타 간행물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부각시키며 적잖은 발행 부수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고정된 독자층의 지지를 받았다.⁸⁾ 《古今》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특정한 독자층을 겨냥한 《古今》의 발행 전략은 상당히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古今》은 대중적인 인기는 얻을 수 없었지만 일관된 풍격을 고수할 수 있었다. 이는 《古今》과 비슷한 성격을 띠었으면서도 통속적인 면을 적극적으로 외면하지 않았던 《天地》 등의 간행물을 살펴봐도 드러난다.⁹⁾

후에 《古今》에 글을 투고했던 문인들 가운데 汪精衛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몇몇을 제외한 나머지는 국민당정부의 직접적인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작가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1945년 이후, 그들은 문단의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부득이하게 절필을 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잔뜩 몸을 사린 채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文載道 역시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는 창작을 중단하고 문사연구에 전념하거나 잡지 편집 등 다른 직업을 갖게 된다.

文載道는 일찍이 《魯迅風》을 편집한 경력이 있으며, 《文匯報·世紀風》

7) 김미정, <중일전쟁시기 周作人의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중국현대문학》 제20호, 2001, 485-515쪽 참고.

8) 《古今》은 1930년대에 성공을 거두었던 비슷한 유의 소품문 잡지의 틀을 많이 가져왔다. 그러나 거기에 자신만의 색깔(귀족적 취향)을 더했고, 그러한 틀을 변치 않고 꾸준히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성격은 《古今》이 고정된 독자층을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평가된다.

9) 《古今》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성격의 잡지들이 많이 발행되었는데 《天地》 역시 그러한 잡지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유행하였던 上海는 작가의 수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天地》와 《古今》의 경우 일부 작가가 겹치기도 했다. 그렇기에 두 간행물이 비슷한 점이 없지 않지만, 차이점 역시 적지 않았다. 첫째, “《古今》은 남성이 편집을 주도했고, 문인기질이 길었으며, 문언문이 많이 섞여 있었음은 물론이고 시나 사 작품이 실리기도 했다.” 반면에 “《天地》는 여성작가인 蘇青이 편집을 주도했고, 현실생활 제재와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을 다루었으며, 문언문이나 고증류의 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楊佳嫻, <《天地》與《古今》>, 《懸崖上的花園：太平洋戰爭時期上海文學場域(1942-1945)》, 臺北：國立臺灣大學文學院, 2013, 292-298쪽.

·《宇宙風乙刊》·《天地》·《風雨談》·《古今》 등에 적잖은 작품을 투고했다. 1941년, 그는 자신의 아내 武桂芳와 함께 당국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은 후 풀려나게 된다.¹⁰⁾ 이 사건은 文載道の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는 이 사건을 겪고 약 일 년여 동안 절필하고 칩거하게 된다. 그러나 1942년, 그는 다시 문단으로 돌아와 주로 서정적인 소품문 창작에 전념한다.

그 시절의 上海, 그러니까 남방의 출판계는 유난히 적막했다고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출판물이 매우 적었을 뿐더러, 그 수준 역시 높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판에서 《古今》 창간호를 발견하게 됐다. (...중략...) 그래서 그것을 한 권 사가지고 집에 돌아와 자세히 읽어보니 내 취향에 상당히 부합하다고 느껴졌다.

(...중략...)

그래서 나는 매번 잡지가 출간될 때마다 사와 열심히 읽었다.

좋은 잡지라면, 그것의 원고료가 설사 조금 박하다고 하더라도 — ‘검덕회’의 회원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 그 내용이 좋기만 하다면 작가는 기꺼이 투고할 것이다. 그 편이 원고료가 후하지만 내용이 그저 그런 잡지에 투고하는 것에 비해 훨씬 낫지 않겠는가.(그렇다고 해서 《古今》의 원고료가 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古今》에 합류하고 싶어서 黎庵 형에게 서신을 보내 내 나를 받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이내 환영한다는 회신을 받았다.¹¹⁾

그가 《古今》에 투고를 결심하게 된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古今》의 편집을 주관했던 周黎庵이 그의 절친한 벗이었다는 사실에

10) 1941년 12월 文載道는 아내와 함께 체포되었고, 아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친구들을 배신하고 명단을 제출했다. 그는 이 일로 인해 두고두고 무거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 후에 자신의 서제 이름을 ‘辱齋’로 바꾸었다. [美] 傅葆石 著, 張霖 譯, 《灰色都市 1937-1945, 中國文人隱退、反抗與合作》, 北京: 三聯書店, 2012, 164-204쪽.

11) “而這時節的上海, 其實也可說是南方的出版界異常沉默, 定期刊物既然這樣的少, 則其水準自也不能強人意了. 但忽然不知在那一天, 我在報攤上瞥見一本《古今》的創刊號. (...중략...) 便買了一冊, 回到家裏就細讀一過, 似乎相當合我的胃口. (...중략...) 我因此更每期手不釋卷的買來閱讀. 一本好的刊物, 即使對作者的酬金較為儉薄一點 — 自然不能儉到可以做‘儉德會’的會員 — 但只要內容整齊, 作者也寧願為它撰稿, 期興趣比在內容窳劣而酬金奇多的刊物上寫作還要高. (但此非謂《古今》的稿金過少) 所以, 我就很有意為《古今》打雜, 曾經寫信給黎庵兄, 問他是否接受, 而回信則是: 頗表歡迎云.” 文載道, <借古話今>, 周黎庵 主編, 《古今》(影印本)(第2卷), 揚州: 廣陵書社, 2009, 187-193쪽.(原載《古今》周年紀念特大號, 1943年 3月.)

있다.¹²⁾ 文載道는 《古今》이 정간되기까지 많은 작품을 두고했고 여기에 실었던 글과 다른 작품들을 엮어 두 권의 단행본을 출판했다.¹³⁾ 말하자면 《古今》은 윤합시기 그가 활동했던 주요 무대였던 셈이다.

1930년대 말, 文載道는 <逸民의 기질을 해소하자(掃除逸民氣)>라는 글에서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소극적인 개인의 영욕'에만 치중하는 당시 문단의 '옛 逸民의 기질'을 신랄하게 꼬집은 바 있다.¹⁴⁾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40년대 초, 文載道는 그 자신이 신랄하게 꼬집었던 '逸民'으로 변모했고, 그의 문체 역시 잡문에서 산문으로 바뀌었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上海에서 잡문 창작이 더는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과, 잡문이 더 이상 그가 창작하려는 제재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동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는 창작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문체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산문은 감상적이고 또 우회적으로 개인에 대해 서술하기에 적합한 문체였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 지식인에 보다 가까웠던 文載道에게 산문은 익숙한 문체이기도 했다.¹⁵⁾ 그는 민감한 현실 문제를 언급하는 대신에 '개인'을 표현하려 애

12) 周黎庵은 《魯迅風》에서도 文載道와 뜻을 함께 했던 동료였고, 일찍이 《宇宙風》, 《宇宙風乙刊》을 맡은 바 있는 경험 많은 편집자였다. 朱樸은 周黎庵에게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일임하고 자신은 잡지사의 사장 신분만을 유지했다. 周黎庵이 《古今》의 편집을 맡으면서부터 잡지는 안정적으로 발행될 수 있었고, 잡지의 방향도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周黎庵 자신이 1930년대에 소품문 잡지를 맡았던 경험이 있기에 《古今》도 그러한 소품문 잡지의 성격을 일부 계승하게 되었다. 文載道는 적극적으로 항전을 주장한 柯靈 등 동료와 관계가 소원해진 반면 周黎庵과는 계속해서 밀접한 친분을 유지했다. 文載道는 <文抄·跋>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나는 예전에도 내가 썼던 글을 위해 간략한 발문을 쓴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때는 몇몇 동료와 함께 책을 펴냈던 것이었다. 그 몇몇 동료들 가운데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일부는 먼 곳으로 떠났다. 또 일부는 지척에 있지만 함께 담소를 나눈 것이 언제인지 까마득하다. 오직 한 사람[周黎庵]만이 여전히 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我過去雖然也爲自己的文字寫過一二則簡略的序跋, 但那是與幾位朋友合出的. 而那幾位朋友, 至今或已幽明永隔, 或已遠適地方, 或已咫尺千里的久遠談笑, 只有一位, 到目前還走得比較密近.)". 文載道, <文抄·跋>, (原載: 《古今》第48期.) 周黎庵과 文載道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徐迺翔·黃萬華 著, 《中國抗戰時期淪陷區文學史》,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995, 597-598쪽 참고.

13) 文載道는 《古今》에 발표한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썼던 다른 작품을 한데 엮어서 1944년 6월, 11월에 두 권의 단행본을 펴냈다. 그것은 《風土小記》(上海: 太平書局)와 《文抄》(北京: 新民印書館)이다.

14) 文載道, <掃除逸民氣>, 《橫眉集·金性堯全集》第一卷, 上海: 百家出版社, 2009, 65-66쪽.

썼다. 상술한 이유 외에도 당시 上海에 산문 창작이 유행했다는 사실도 文載道の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¹⁶⁾

文載道는 ‘언(言)’과 ‘불언(不言)’의 상황에서 ‘언(言)’을 택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¹⁷⁾ 이에 ‘풍토인정, 과거의 경력, 독서 잡기’ 등이 文載道の 새로운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작품은 농후한 ‘회고(懷古)’적 색채를 띠고 있다. 그는 문학의 지나친 ‘서구화(歐化)’에 반대했고, 중국의 전통 유산을 작품 속에 더 많이 포함하길 바랐다. 曹琛은 이러한 文載道の 창작 성향의 변화에 대해 본래 魯迅의 추종자였던 文載道가 周作人의 추종자로 변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⁸⁾ 엄밀하게 말하면 文載道가 선택한 것은 좌도 우도 아닌 ‘중간(中間)’의 위치였던 셈이다.¹⁹⁾ 周作人의 지적처럼 그의 글은 ‘구국’을 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최소한 ‘나라를 망칠’ 글은 아니었다.²⁰⁾

-
- 15)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文載道는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글공부를 했고, 가족과 함께 上海로 이사 온 후에도 따로 선생을 모시고 고문을 공부했을 정도였다. 그의 고문 실력은 상당히 뛰어났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載道, <舊簡>, 周黎庵 主編, 《古今》(影印本)(第4卷), 揚州: 廣陵書社, 2009, 285-289쪽. (原載: 《古今》第52期.); [美] 傅葆石 著, 張霖 譯, 《灰色都市 1937-1945, 中國文人隱退、反抗與合作》, 北京: 三聯書店, 2012, 164-204쪽 참고.
- 16) 文載道가 다시 창작을 재개했을 때 운합구의 상황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다. 잡문 창작은 당국에 의해 금지됐고, 운합구에는 비교적 통속적인 대중간행물이나 산문·수필 간행물이 유행하게 됐다(文載道重新開始創作的時候, 已經和以前情況大不一樣. 雜文創作被當局禁止, 淪陷區流行的是比較通俗的大眾刊物, 或者是散文隨筆的刊物.). [美] 耿德華 著, 張泉 譯, 《被冷落的繆斯: 中國淪陷區文學史1937-1945》, 北京: 新星出版社, 2006, 207-208쪽; 上海에서 산문이 유행하기 전에 北京에서는 이미 산문이 유행한 바 있다. 文載道가 산문 창작을 시작했을 때는 바로 上海에서 산문이 부흥했던 때였다. 운합구의 창작 환경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람. 錢理群, <導言>, 《中國淪陷區文學大系·散文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9, 2쪽 및 黃萬華, <藝術借鑒: 淪陷區散文同外來文化影響相處的基本格局>, 《社會科學輯刊》1995年 第1期, 140-145쪽.
- 17) 錢理群, <總序>, 《中國淪陷區文學大系·散文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9, 1-11쪽.
- 18) 曹琛, 《異度空間的浮沈: 《古今》文人心態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36쪽.
- 19) 黃萬華, <淪陷區作家的裝作心態及其文學的基本特征>, 《華僑大學學報》1995年 第2期, 3쪽.
- 20) 周作人, <文載道文抄序>, 《立春以前·周作人自編集》,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2, 195-196쪽.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문이재도’에 찬성한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 도를 신지 않은 문장은 없다. (...중략...) 다만 오직 내 말만이 중요하다고 여기진 않는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고금중외를 막론하고) 마음속의 ‘도’를 무시할 생각도 없다. 내가 말하는 ‘도’란 다만 평담한 인생을 가리킨다. 인생에는 결코 한 가지 길만 있을 수 없다. ‘선열의 혈흔을 밟고서 혁명에 뛰어드는 것’도 도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가 오는 밤에 들려오는 두견의 울음소리, 연못가의 기러기 소리, 쉬지 않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역시 도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인가.²¹⁾

이 글은 文載道의 심경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한때는 ‘혁명’만이 삶의 유일한 ‘도’라고 여겼던 그는 세상에 수많은 ‘도’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한다. “새가 지저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도’이고 세상 천지만물이 ‘도’가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특정한 신념에만 매달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저항이나 혁명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던 것은 아니었다. 또한 이것이 결코 눈과 귀를 닫고 일체 세상사에 관심을 끊겠다는 선언은 아니다. 다만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上海마저 전면적으로 적의 통치 하에 놓인 상황에서의 文載道의 생존방식이자 글쓰기 방식이었다.

文載道가 《橫眉集》(1939)에 실은 다음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30년대에도 그가 오직 ‘항전’만을 주장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유, 정의, 인도주의” 등의 인간의 ‘평상시의 정신활동’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즉 ‘도’에 대해서도 줄곧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다.

어떤 필치와 어떤 심경으로서만이 항전기의 중국 문화계의 노력과 분투의 의지를 찬송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어떤 적개심과 비통함으로서만이 적의 손에 목숨을 잃은 문화 투사들의 순국을 널리 호소할 수 있던 말인가?

21) “老實的說，我也是贊成文以載道的，換言之，世上絕無不載道的文，(...중략...) 卻並非是那種一道同風的只有自己的話可以作什麼“重心”，並且一古腦兒抹煞別人存在的正流派(無論古今中外)胸中的“道”。我所謂“道”，只是平淡的人生，而人生卻是多方面的，“踏上先烈的血跡，向革命的途中奮進”，果然是道之一面，可是，雨夜的鶉啼，蘆塘的雁聲，以及潺潺地終古不停流着的溪水，何莫非道之另一面。”文載道，〈水聲禽語〉，〈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215-222쪽.

매번 새로이 출간된 도서를 볼 때마다 그것들이 목전의 항전과 관련이 있진 않진 간에, 우리의 자유, 정의 및 휴머니즘과 관련 있는 책을 발견할 때면 나는 마찬가지로 무한한 희열을 느낀다. 그리고선 잔뜩 흥분해 그것을 사서 돌아온다. 그렇다. 우리는 여전히 평상시의 정신적 활동의 유지를 필요로 한다!²²⁾

文載道는 당면한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항전'이 시급한 시대적 임무라는 사실에도 동의했다. 다만 평상시의 정신적 활동 역시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것뿐이다. 신변잡기적인 소품문을 창작하게 된 후에도 文載道の 이러한 생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많은 작가들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文載道는 '침묵'이 아닌 '발언'을 택했다. 물론 그는 글을 통해 직접적으로 구국을 호소하고 항전을 고취하지는 않았다. 그랬기에 그의 발언은 특히 좌익 문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다음 글은 文載道 개인과 《古今》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비극'과도 같은 삶을 사는 소시민에게 고상한 취미와 지식을 전해주고 싶다. 그들에게 합리적인 소일거리의 대상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간행물이 없었다고 본다. 《古今》은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는 또 매우 아름다운 일이다. 물론 우리에게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긴요하게 해야 할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은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모든 침묵하는 이를 존중한다. 그러나 만약 꼭 출판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상술한 조건을 갖춘 간행물을 펴낼 수 있다면 어찌면 마음속에 부끄러움은 가지지 않아도 되리라.²³⁾

22) “應該用怎樣的筆觸，與怎樣的心境，為抗戰期中的中國文化界艱苦奮鬥的毅力而祝頌呢？然而，又應該怎樣的敵愾與悲痛，為瀝血與敵人鋒鏑下的許多文化鬥士的殉國而控訴呢？每當我看到了新出的圖書館刊物——不論它們，有否跟當前的抗戰有關，而只要跟我們的自由，正義以及人道有連系的著述的時候，我，一樣以無限喜悅，無限興奮的手去迎接過來。是的，我們依然需要維護常態的精神活動！” 文載道，〈槍與筆〉，《橫眉集·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85-86쪽.

23) “我們能夠從幾乎無事的悲劇的小市民中間，灌輸一點高尚的趣味與智識進去，使他們有了合理的消閑的對象，則這樣的刊物已覺其功不在禹下。《古今》能夠做到這一點，倒確足以誌與古今的了。我們自然還有更積極的，更要緊的話要說，但現實所回擊我們的，偏偏又是不能！”

文載道の 위의 글은 많은 사실을 알려 준다. 오락이나 여흥의 성격을 띤 잡지의 발간만이 허용되고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이 가능했던 잡지들이 모두 정간된 상황에서 많은 문인은 차라리 절필을 택했다. 하지만 文載道는 비록 자유로운 발언이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가벼운 여흥으로만 채우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다. ‘긴요하게 해야 할 말’이란 바로 항전이나 구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없다 해도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는 무엇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을 써서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일깨워줄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文載道는 이처럼 자신의 글쓰기에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24)

文載道가 말한 ‘고상한 취미’란 고급 취미나 한가함에서 나오는 그런 여유가 아니라 마비된 감각을 일깨워주고 삶에 대해 보다 깊게 사고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글을 말한다.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의 글쓰기가 일부에서 비판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창작에 매진했던 것이다. 당시의 살벌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가벼운 오락거리는 오히려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처럼 오락거리를 통해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잠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었다.

文載道가 선택한 ‘일상·전통·산문’과 같은 것들은 거대 서사와 외부의 힘에 저항할 수 있는 나름의 무기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가 지식인으로서 가지고

我們尊重一切的沉默者，但倘使必要出版和著作，那麼，辦一種具有上述的條件的刊物，庶幾也無愧於乃心了。” 文載道，〈茶煙小記〉，〈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202-207쪽. (原載：《古今》第22期.)

- 24) 전시의 중국의 시민들(이들은 이 시기 문학잡지의 중요한 독자층이었다)은 대체로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 심리적 욕구와 기대심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또 현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기에, 여전히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렇기에 지식과 흥미, 삶에 대한 체험을 모두 담아낼 수 있었던 수필이라는 장르가 이러한 독자 심리에 부합해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었던 것이다.(經過戰亂的中國市民(他們是這一時期文學期刊的重要讀者)都有一種趨輕的心理欲求與閱讀期待，但他們又不能完全脫離現實，仍然保留着某種人間關懷，集知識性、趣味性與人生體味於一爐的隨筆正是適應了這樣的閱讀心態而風行一時.)’ 錢理群，〈導言〉，〈中國淪陷區文學大系·散文卷〉，南寧：廣西教育出版社，1999，8쪽.

있던 책임감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했던 부채감과 죄책감은 창작에 대한 욕구를 부추겼던 것이다.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文載道 작품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회고'적 성격의 글쓰기

文載道가 《古今》에 발표한 작품은 과거를 그리워하고, 이런 저런 자잘한 이야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 학문에 관해 논한 것, 집일(輯佚)이나 일화 등의 소품문이 주를 이룬다. 文載道는 한 글에서 스스로가 “과도 속 수많은 물거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²⁵⁾ 이는 당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실감한 데 대한 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윤합시기 文載道 작품을 관통하는 공통된 기조이기도 하다.

文載道는 《古今》 제13기(1942년 12월)에 <關於風土人情>이라는 글을 게재하는 것을 시작으로 1944년 10월 《古今》이 종간되기까지 25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關於風土人情>라는 글을 통해 당시 그의 복잡한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람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면 그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러면 울음 섞인 웃음을 지을 뿐, 마치 세상에 옳은 것이라고는 없는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인류가 '고등동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도 대체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슬픈 병증은 개인이건 민족이건 간에 아마도 무감각해진다는 게 아닐까. (...중략...) 옛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놓일수록 좋은 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풍토나 절기, 경물을 저술한 작품 가운데 유민의 그것보다 더 실감나게 묘사한 것을 보지 못했다. 풍경 묘사든, 물건에 관한 기록이든, 옛 일을 말한 것이든 간에 감정이 풍부하지

25) 文載道, <風土小記·跋>, 《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 上海: 百家出版社, 2009, 308쪽.

않은 것이라곤 없다. (...중략...) 바뀌 말하면,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 진 것 같은 변동’을 겪은 후 남는 것이라곤 시련과 단련을 거친 생에 대한 집착뿐이란 걸 알게 된다. 육기(陸士衡)가 읊은 ‘嗟大戀之所存, 故雖哲而不忘(큰 그리움이 남아 있음을 슬퍼하니, 비록 명철한 사람일지라도 잊지 못한다)’가 곧 그것이다.²⁶⁾

이 글이야말로 당시 文載道의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풍토·절기·경물’에 대해 쓰는 것이 결코 한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 진 것 같은 변동”을 겪은 후라야 비로소 평소 무감각하게 바라봤던 사물에 대한 시선이 바뀐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명의 위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리고 무감각하게 살아왔던 평범했던 일상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렇기에 풍경이나, 사소한 물건, 과거의 추억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감회 역시 남달라질 수밖에 없다.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은 ‘죽음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생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을 빌려 현재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의미이다.”²⁷⁾ 이러한 “생에 대한 집착”은 운합시기 文載道가 창작한 대부분의 글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기도 하다. 여기서 말하는 ‘생에 대한 집착’이란 죽음과 삶에 대해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말한다.

26) “人到了無可奈何的境地之中, 往往有一種欲說還休的無言之慟, 覺得俯仰啼笑, 仿佛一無是處. 而人類之配稱得起高等動物者, 其大半也正在於此. 因此世上可悲而致命的病症, 不論個人或民族, 怕也正是麻木罷. (...중략...) 古人說詩是窮而後工的. 我以為一切記載風土、節候、景物的著述, 也以出諸遺民的筆下最有聲色. 無論寫景, 記物, 道故實, 雖然娓娓道來, 卻無不含着至性至情, 成爲筆鋒常帶情感之作. (...중략...) 換一種說法, 人們在天翻地覆的大變動之後, 所留下來的, 卻是經過千錘百煉之餘的一種生的執着, 如陸士衡所謂‘嗟大戀之所存, 故雖哲而不忘’者是也.” 文載道, <關於風土人情>, 《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 上海: 百家出版社, 2009, 149-153쪽. (原載: 《古今》第13期.) 이 글은 文載道의 산문 작품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작품은 《新文學大系·散文卷》과 《淪陷區文學大系·散文卷》에도 수록되어 있다.

27) 錢理群, <導言>, 《中國淪陷區文學大系·散文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9, 11쪽.

나는 고향을 어떤 유토피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미 십리양장(十裏洋場)의 경박함과 혼탁함, 추악함에 신물이 났다. 나는 영혼을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이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그곳에서라면 인생과 자연의 순박함과 안일함이 있을 것이다. 설사 싱거운 차를 마시고, 거친 담배를 피운다 해도 나만의 즐거움과 낙이 있지 않을까.²⁸⁾

文載道가 《古今》에 실었던 작품들을 살펴보면 ‘고향’에 관한 묘사가 유독 많다.²⁹⁾ 그러한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짙은 노스탤지어와 향토적 정서일 것이다. 고향은 그가 ‘현재’ 살고 있는 上海와 선명하게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묘사된다. 그렇기에 그가 작품에서 묘사한 것은 ‘하나하나가 진실한’ 고향의 면모였지만, 글에서의 ‘고향’은 오히려 정신적 고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周作人이 文載道の 작품을 읽고서 “마치 고향의 벼를 만난 것 같다”³⁰⁾라고 평가한 것은 두 사람이 동향인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는 두 사람의 문학에 내재된 정신이 유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文載道는 단순히 고향을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맛보았던 차나 음식 등 구체적인 것들을 함께 환기하며 미각·시각 등 온몸의 감각을 통해 고향을 회고하고 있다. 이처럼 풍부한 오감을 통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스스로의 생명 존재를 재차 느끼고 확인하는 것에 다름없었다.

이 세상에서 오직 ‘과거’만이 다시 곱씹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설사 이미 지나간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하나가 모두 실재했던 것들이다. 그렇기에 더할 수도, 덜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미래처럼 어렵פות하고 의지하지 못할

28) “我並不一定以我的故鄉爲人間的樂土，然而對於十裏洋場的浮滑渾濁與醜惡，我是早已感到厭倦了。我希望有一塊靈魂的安息之鄉，在那裏，有着人生與自然的淳樸、安閑，即使是喝着清淡的茶，吸着土產的旱煙，我也有我的愛和樂。” 文載道，〈茶煙小記〉，《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202-207쪽。（原載：《古今》第22期，1943年5月。）

29) 〈關於風土人情〉·〈千家笑語話更新〉·〈故鄉的戲文〉·〈水聲禽語〉·〈雪夜閉門讀禁書〉·〈憶何家槐〉·〈茶煙小記〉 등 많은 글에서 고향에 관한 묘사를 찾아볼 수 있다.

30) 周作人，〈文載道文抄序〉，《立春以前·周作人自編集》，北京：北京十月文藝出版社，2012，195-196쪽.

그런 것이 아니다.³¹⁾

文載道 작품에서의 '회고'는 단순히 과거는 좋았고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현실도피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인간은 대개 누구나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과거를 다시 되돌아보며 새삼 그것의 가치를 재발견하곤 한다. 당시에는 당연시하고 무감각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들이 언제든 곱씹어도 아름다운 기억들로 재차 발견되는 것이다. 물론 과거는 현재보다 좋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의 여과를 거쳐 실제보다 아름답게 기억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 인간이 삶의 순간들을 현재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제대로 느끼며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즉 현실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커다란 비극인 것이다.

<憶家槐>라는 글은 벗과 함께 보낸 고향에서 보낸 시절을 회상한 글이다. 이 글은 친구와 함께 보낸 고향에서의 일상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리 고향에서의 일상생활은 대략 아침 7시 전후에 기상하며 시작된다. 家槐는 위생을 매우 중시해 나에게도 억지로 함께 심호흡을 십분 정도 하게 하고서야 비로소 아침을 먹는다. 어떤 날은 하인을 시켜 막 시장에 나온 黃魚를 사오게 했다. 이 물고기는 물에서는 구하기 힘든 것이나, 시골에서는 오히려 매우 흔하다. 우선 물고기를 물에 넣어 끓이고, 그 가시를 제거하고 부엌에서 일하는 하인을 시켜 면을 뽑게 한다. 국수에는 푸르고 여린 파를 올렸다. 이는 당(唐)나라 사람의 봄 부추에 관한 구절을 떠오르게 한다. (...중략...) 점심 식사 반찬은 민물 생선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家槐는 오직 푸른 채소와 두부만을 달라고 요구한다. 거기에는 비타민이 매우 풍부하다고 말이다. 그의 이런 행동은 나의 흥을 싹 가시게 했다. 내가 물의 고장에 처음 온 그를 위해 특별히 온갖 방법을 동원해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구해왔는데도 말이다. 내 친한 벗 가운데 살진 게를 보내 준 이도 있었다. 그것은 시골에서도 별미로 여겨졌으며, 때로는 많은 돈을 주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家槐는 그것에 세균이 많다고

31) “世上也唯有‘過去’才值得咀嚼與追求，縱然往者已矣，但它畢竟是件件真實，不能再用任何力量可以加減，不像未來那樣的縹緲無據。”文載道，〈千家笑語話更新〉，《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154-159쪽.

손도 대지 않았다. 이는 내게 참으로 거문고를 태워 학을 삶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후에 그는 생으로 먹는 절인 게를 보고서는 눈길조차 주려고 들지 않았다. 아마도 바다 근처에 산 이가 아니고서는 쉽사리 젓가락이 가지 않았을 것이다. (...중략...) 말하자면, 나의 과거에서 고향에서 보낸 그 일 년은 가장 흥분하고, 자유롭고 편안했던 시간이었다. 나의 벗 가운데 家槐는 가장 성실하고 진솔한 이였다. 글로 옮기려니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아쉽게도 그가 지금 어디를 떠도는지 알 길이 없다. 혹시 그가 이 글을 읽는다면, 그 역시 아련함을 느끼려나.³²⁾

이 작품은 친구와 보냈던 행복한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글로 주로 고향의 먹을거리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두드러지며, 향토의 일상생활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이 행간의 곳곳에서 묻어난다. 文載道는 과거의 일상을 글을 통해 생생하게 재현해낸다. 읽어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이지만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고향에서의 일상은 그들이 복원해야 할 이상향이자 반드시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의 일부분으로 소환되었던 것이다.

한편 文抄와 독서에 관한 기록은 文載道の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이러한 유의 글은 《文抄》(1944)라는 작품집에 수록된다.³³⁾ <憶

32) “我們鄉間的日常生活，大約是早晨七時前起身。家槐很講究衛生，還硬拉我同行深呼吸，如此十分鐘即進晨餐。有時叫傭人往街上買剛入市的黃魚來，金鱗赤口，非水鄉百姓不易得，而鄉間則視爲尋常。先用水煮沸，再去其骨，命灶傭制羹作面，面上則浮着碧綠的嫩蔥，令人想到唐人夜雨煎春韭的句來， (...중략...) 午飯時菜肴多爲水族動物，但家槐則只要求青菜豆腐，謂其中維他命甚富。這很使我乏味掃興。我因他初次到魚蝦之鄉來，還特地四出設法揀最新鮮壯實的東西，親友中有送我以肥大青蟹的，即在鄉間已視爲異味，有時出重價也不能得，不料他竟遠而避之，說是細菌太多云。這真令人有煮鶴焚琴之感。後來看到生食的鹹蟹，甚至連看都不敢看一眼。大約這些東西在離海過遠者，確乎不肯輕於下箸。總之，在我的過去生活中，恐以這一年鄉居時爲最寬暢，自由與安逸了；而我的朋友中，也以家槐爲最誠懇坦白的一個。形諸筆墨，或尚不爲多事吧？惜今未知家槐漂泊何處，如得讀此文，亦能監而憐之否。” 文載道，〈憶家槐〉，《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266-273쪽.

33) 文載道는 일찍이 北京에 있는 周作人에게 그의 문집 《文抄》의 서문을 청한 바 있다. 周作人은 <文載道文抄序>의 서문에서 文載道와 紀果庵에게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것은 두 사람이 ‘知堂風’을 계승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인데, 두 사람은 각각 周作人の 일면에 근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周作人이 文載道에게 서문을 써주게 되는 과정을 보면 두 사람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했을 뿐 아니라, 周作人이 文載道를 높이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文載道는 <文抄跋>에서 周作人에게 서문을 부탁하고 그것을 받게 되기까지의 경위와 周作人の 서신에서 그것과 상관있는 내용 일부를 빼거 적으며 그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徐迺翔·黃萬華, 《中國抗戰時期淪陷區文學史》,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995, 597-600쪽; 文載道, 〈關於《文抄》及《風土小記》〉, (原載: 《古今》第48

三家村> · <夜讀> · <雪夜閉門讀禁書> · <重讀論語> · <我與書> 등의 일련의 글은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학문을 대하는 그의 진솔한 감정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 《古今》에 실었던 글 중에서 유독 '독서'에 관한 글이 많은 것은 그것이 제재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둘째로는 독서가 자신과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文載道에게 독서란 그저 한가롭게 시간을 때우려는 목적에서도 아니었고, 지적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서 내면과의 대화를 시도하려는 고독한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文載道는 古書에 흥미를 가졌을 뿐 아니라, 魯迅이나 周作人 등 동시대의 작가와 외국문학에도 관심을 가졌다. 물론 독서의 중점은 古書와 周作人에 맞춰져 있었지만 말이다. 이러한 유의 글을 들여다보면 마치 그가 모든 정력을 고서를 읽고 그것을 집일(輯佚)하는 데 쏟은 것처럼 비춰진다. 비록 《文抄》에서의 일부 작품이 난해하긴 하나, 그것을 통해 文載道의 지식인으로서의 면모가 유감없이 발휘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글쓰기 방식이 그가 흠모했던 周作인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³⁴⁾

<重讀論語>라는 글에서는 《논어》를 읽고 난 구체적인 개인의 감회를 매우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곱씹으며 자신의 심경을 기탁한다. 그러면서도 《논어》를 읽고 남긴 이들의 글을 인용해 제시하며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논어·자한》편의 “子在川上曰，逝者如逝夫，不舍晝夜！”³⁵⁾라는 구절

期.)

34) '文抄'란 周作인이 1930년대부터 즐겨 사용한 글쓰기 양식이었다. 이러한 글쓰기 양식에 있어서 청대 유학자의 필기 산문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무턱대고 고서의 내용을 베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둘러싸고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책에서 집록한다던가 하는 식의 작가의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文載道가 '文抄'라는 글쓰기 방식을 택했던 것은 그 역시도 점령지 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周作인에 대한 암묵적인 동조와 이해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周作인에 문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 홍준형, <1930년대 周作인의 文體 選擇과 그 動因>, 《중국문학연구》 제30집, 2005, 77-100쪽; 김미정, <周作인의 산문문체 — 소위 '文抄'체에 대한 일고찰>, 《중국문학》 제45집, 2005, 51-64쪽.

35) “선생님, 냇가에서 말씀하시다. 흘러가는 것이 꼭 이와 같을 진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것

을 읽은 文載道の 감회는 다음과 같다.

나는 직감적으로 이 글이 소박한 산문시라고 느꼈다. 그래서 공자에게 친근함을 느꼈다. 사람은 왕왕 어렵듯하게, 찰나 간에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생명에 대한 무상함에 말할 수 없는 비애감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일생을 분주하게 보냈지만 결코 속되게 되지 않았다. 그런 그였기에 흐르는 시냇물을 보고 자 nhiên히 감정에 어떤 파란이 일어났을 것이다. 게다가 물은 줄곧 환멸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풍부한 철학적 함의를 띠는다고 여겨지지 않았던가. 불가(佛家)에서 말한 거울 속의 꽃이나 물에 비친 달(鏡花水月)이 바로 그러하다.³⁶⁾

그는 《논어》의 위 구절이 오히려 한 편의 ‘산문시’라고 보았다. 이는 그가 공자를 성인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바라봤기에 가능한 해석이다. 공자는 일생을 자신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누차 실패를 겪었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文載道는 이 글에서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 《논어》를 읽지 말고, 이를 공자와 그 제자들의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으로 바라보길 반복해서 권한다. 따라서 그는 공자를 성인으로 숭배하는 것도 《논어》를 성인의 말씀을 담은 책으로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³⁷⁾ 하지만 이는 《논어》에서 교훈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文載道の 중점은 공자가 그가 추앙하는 이상형에 부합한다는 것에 있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文載道는 일본의 소설가 아리시마 다케오(有島武郎)를 인용하며, “[성인의: 인용자]일상적인 대화야말로,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설교가 아니겠는가.”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그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삶의 보편적 진리와 삶을 통찰할 수 있는 힘이 감춰져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文載道가 앞서 세상

이.” 배병삼, 《한글세대가 본 논어1》, 문학동네, 2002, 490쪽.

36) “至於我，則直覺地感到這確是一節素樸的散文詩，而對孔丘也益有親切之感。一個人往往在恍惚間，剎那間宜洩了靈魂的深處，對生命起了無常無言之悲。孔丘爲其自己的理想奔走一生，始終不見容與流俗，一旦對着汨汨而去的川水，自然會在感情中翻起了汎瀾。特別是水，一向被認作幻滅的象征，富於哲學的意蘊，如佛子之所謂鏡花水月是也。” 文載道，〈重讀論語〉，《文抄·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409-416쪽。(原載：《古今》第24期。)

37) 위의 책, 같은 쪽.

에 ‘도’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했던 언급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성인으로 추앙되었던 공자조차도 흐르는 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삶에 대한 무상함을 드러낸다. 이는 공자의 인간적인 측면을 여실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文載道 역시도 《논어》의 많은 글귀 가운데 유독 이 구절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역시 그러한 삶에 대한 무상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文載道는 선입견을 버리고 고서에 입혀진 아우라를 벗겨내 ‘참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지식인의 임무라고 보았다. 그는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다면 최소한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고 조금이나마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³⁸⁾ 그의 글 곳곳에서 그러한 말을 입증해 주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의 文載道에게서는 이미 글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전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글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식인(혹은 개체)의 존재 가치를 어떤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데 골똘히 집중한다.

이처럼 文載道에게서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만 그것이 현실과의 치열한 투쟁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나 개체의 존재에 대한 사유에 좀 더 치우쳐 있었던 것뿐이다. 그러나 모두가 그러한 그의 생각에 동의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음의 글은 文載道를 비롯한 《古今》 문인들이 처했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언론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법이다. 설리를 하려거든 정세를 살펴야만 한다. 문장을 짓는 이가 도피하려고만 하고, 에둘러 말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태평을 사탕수수처럼 썰 새 없이 씹거나, 동서고금의 글에서 이것저것 끌어와 스스로의 글에 모아 놓는다. 그 결과, 청답이라고, 판에 박힌 말이라고, 천박하다고 욕을 먹었다. 청답은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며, 판에 박힌 말과 천박한 글은 일독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춰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헤아려주는 이는 없다. 물론 사회와 대중에게 필요한 글을 직설적으로 쓰는 전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예전의 魯迅 선생이 그랬던 것처럼 공격해 오는 자에게 공격을 되돌려 주

38) 위의 책, 같은 쪽.

는 그런 사람 말이다.³⁹⁾

어떤 제재에 대해 쓰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던 당시 상황에서도 그들은 글쓰기를 견지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글쓰기는 결코 자기만족을 위한 것도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한 목적에서도 아니었다. 그들에게 글쓰기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우회적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개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黃萬華는 “문학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운합구작가의 기본적인 심리적 특징이라고 보았는데,⁴⁰⁾ 그들에게 글쓰기란 이러한 목적이 매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즉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점령지에서 살아가는 문인으로서 개체의 정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그렇기에 비록 크게 보면 그들의 글쓰기가 1930년대 소품문을 계승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글쓰기가 1930년대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文載道는 글에서 몇 번이나 자신은 ‘神滅論者’임을 강조했다.⁴¹⁾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힘에 기대어 스스로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절대적 존재의 구원을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필요가 있다. 당시 그에게 있어서 글쓰기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구원’의 희망을 발견하고자 했다. 앞서 周作人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文載道가 어

39) “言論不能隨意，說理要看情勢，作文章的人只有逃避，繞彎子，也許把昔日的升平，當作甘蔗渣咬個不休，也許東抄西掠的弄作古今中外的東西澆自己的塊壘，於是被人罵了，清淡，濫調，淺薄，清淡是可以誤國的，濫調淺薄是不值一讀的，但是沒有人能夠原諒其背後之不得已，也並沒看見一個大膽的戰士，敢率直的陳述了大家的需要文章，一譬如像當年魯迅先生那樣，與打擊者以打擊。”紀果庵，〈散文雜文隨談〉，《讀書》月刊 1946年 3月，第2期。汪文頂，〈戰時淪陷區散文的苦吟〉，《文學評論》2014年 第5期，107쪽에서 재인용.

40) 黃萬華，〈淪陷區作家的裝作心態及其文學的基本特征〉，《華僑大學學報》1995年 第2期，3쪽.

41) 文載道，〈樸園雅集記〉，(原載：《古今》第25期。)周黎庵 主編，《古今》(影印本)(第2卷)，揚州：廣陵書社，2009；文載道，〈西湖舊履錄〉，《風土小記·金性堯全集》第一卷，上海：百家出版社，2009，208-214쪽.

째서 1940년대의 엄혹한 현실에서 오히려 학문과 전통문화에 매달렸는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文載道가 자아의 구원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의 글은 '구국'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는 '개체'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진솔한 감정을 글에 표현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자신이 보고 들은 것과 풍토인정을 기록하고자 했다. 그는 이를 통해 개체의 존재의식을 일깨우고, 불안한 시대에서도 생에 대한 집착을 놓지 않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그 나름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나오며

《古今》은 비록 오랜 시간 '한간잡지'로 분류됐지만, 거기에 실린 대다수의 글은 정치와 무관한 문사수필로 전통 산문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古今》이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는 편집자인 周黎庵과 文載道, 紀果庵, 周作人 등을 비롯한 문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본문은 《古今》에 실린 文載道の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의 1940년대 창작 풍격의 변모와 창작 심리를 분석하였다. 전변 과정에서 드러난 文載道の 고민과 모순 심리는 그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그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지식인의 보편적인 심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1940년대 초, 文載道가 폐문독서를 선언하고 다시 창작을 재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의 내심은 좌책감과 모순으로 충만했다. 그는 당장의 생존을 고려해야 했을 뿐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자의식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의 유약한 선비 기질은 어쩌면 난세에 모습을 드러내 적극적인 저항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폐문독서하며 국가가 점차 안정되길 기다리는 편에 더 어울렸다. 결과적으로 '魯迅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걷고자' 적극적으로 잡문을 창작하던 文

載道는 체포 사건을 계기로 부득불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文載道는 일찍이 <逸民의 기질을 해소하자>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적을 위해 일하지 않고, 빌붙지 않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단지 개인의 영욕의 차원에 국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밖에도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역량을 발휘해 집단의 생활에서 건국의 책임을 실천해야만 한다.”⁴²⁾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940년대의 文載道는 “적을 위해 일하지 않고, 빌붙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文載道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식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고 고향의 풍물과 일상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다.

역설적이게도 文載道の 이러한 전변은 그의 창작에 적극적인 작용을 했다. 그가 산문에서 이룬 성취는 잡문에 비해 훨씬 빼어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周作人は 일찍이 소품문은 ‘개인의 문학의 첨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文載道の 창작은 그러한 소품문의 특징을 충분히 체현했다고 볼 수 있다. 文載道에게 있어서 글 쓰기란 ‘자아 구원’의 방도였을 뿐 아니라, 개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는 작품에서 전쟁을 겪는 와중에서의 개체의 생에 대한 집착과 추구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參考文獻 >

文載道, 《金性堯全集》第一卷, 上海: 百家出版社, 2009.

김미정, <周作人の 산문문체 — 소위 ‘文抄公’체에 대한 일고찰>, 《중국문학》 제45집, 2005.

김미정, <중일전쟁시기 北京이란 문화공간 — 周作人の 경우를 중심으로>, 《중국어문

42) “不事敵，不附逆，自然是要緊得很，不過這還只限於消極的個人的榮譽。此外，我們更應該多發揮一些積極的力量，從合群的生活里去實踐建國的責任。” 文載道, <掃除逸民氣>, 《橫眉集·金性堯全集》第一卷, 上海: 百家出版社, 2009, 65-66쪽.

학》 제54집, 2009.

김미정, <중일전쟁시기 周作人の 친일행위에 대한 일고찰>, 《중국현대문학》 제20호, 2001.

김미정, <周作人の 산문세계: 小品文의 문체구성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45집, 2005.

백영길, <5·4시기 周作人の 기독교 비평담론>, 《중국어문논총》 제42집, 2009.

신동순, <1940년대 상하이(上海) 출판문화정책과 대중문학잡지의 생존 전략>, 《중국현대문학》 제56호, 2011.

홍준형, <산문 전통과 1930년대 학자산문: 周作人, 俞平伯, 廢名의 글쓰기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48호, 2009.

홍준형, <1930년대 周作人の 文體 選擇과 그 動因>, 《중국문학연구》 제30집, 2005.

홍준형, <周作人の 자유주의 사상의 내적 논리와 맥락>, 《중국현대문학》 제60호, 2012.

傅葆石 著, 張霖 譯, 《灰色都市, 1937-1945: 中國文人的隱退, 反抗與合作》, 北京: 三聯書店, 2012.

傅葆石 著, 劉輝 譯, 《雙城故事: 中國早期電影的文化政治》,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8.

耿德華(Edward M. Gunn), 張泉 譯, 《被冷落的繆斯: 中國淪陷區文學史(1937-1945)》, 北京: 新星出版社, 2006.

徐泗翔·黃萬華, 《中國抗戰時期淪陷區文學史》, 福州: 福建教育出版社, 1995.

李相銀, 《上海淪陷期文學期刊研究》, 上海: 上海三聯書店, 2009.

錢理群 等編, 《中國淪陷區文學大系·散文卷》, 南寧: 廣西教育出版社, 1999.

楊佳嫻, 《懸崖上的花園: 太平洋戰爭時期上海文學場域: 1942-1945》,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學院, 2013.

中國新文學大系編輯委員會 編, 《中國新文學大系1937-1949·散文卷一》, 上海: 上海文藝出版社, 1990.

曹 琛, 《異度空間的浮沈: 《古今》文人心態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2.

梁仁昌, 《上海淪陷區學者散文群體創作研究》, 福建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錢理群, <上海淪陷區文化厄運>, 陳子善 主編, 《中國現代文學編年史: 以文學廣告爲中心, 1937-1949》,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3.

蔡登山, <朱樸與《古今》及其他>, 《書城》, 2009年 11期.

馮 昊, <論淪陷區文學中的隱喻>, 《綏華學院學報》 第26卷 第5期, 2006.

- 黃萬華, <藝術借鑑: 淪陷區散文同外來文化影響相處的基本格局>, 《社會科學輯刊》 1995年 第1期.
- 黃萬華, <淪陷區作家的裝作心態及其文學的基本特征>, 《華僑大學學報》 1995年 第2期.
- 黃萬華, <抗戰時期淪陷區文學及其研究>, 《文學評論》 2004年 第4期.
- 肖 進, <淪陷文學視野中的散文懷舊風: 以《古今》半月刊為中心>, 《中文自學指導》 2007年 第4期.
- 汪文頂, <戰時淪陷區散文的苦吟>, 《文學評論》 2014年 第5期.
- 周作人, <文載道文抄序>, 《立春以前·周作人自編集》, 北京: 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2.

< Abstract >

In the 1940s, when Shanghai was under the Japanese rule, publication of magazines was discontinued. However, it soon began to revitalize thanks to the rise of prose writing. Gujin was the first magazine that was published after Shanghai became occupied. The pieces in Gujin were mostly historic prose essays. With its partial success, similar magazines were born, and prose essays became popular in Shanghai. There is another reason that prose became popular: the style of writing allowed the writer to easily express his emotions and the writer can vaguely express his thoughts without having to actually talk about the reality.

The subject of this paper, Wen Zhai Dao, was at first a progressive author who used to write miscellany. When it became difficult for him to write, he gave it up. Then he began to contribute essay-type writing on Gujin, making a come-back to the literary circle. His prose writing was considered similar in characteristic as that of Zhou Zuo Ren, a celebrated author of the time. Wen contributed most of the work that he wrote during the Japanese colonization on Gujin. This paper seeks to analyze Wen's work published on Gujin in order to shed light on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circumstances at the

time and an individual's mindset on writing or the selection of the subject. Furthermore, this paper aims at discovering the characteristics of Wen's work and the meaning behind them. The fact that a lyrical and retrospective prose was popular at the time when collectivism prevailed over individualism and resistance against war was encouraged has strong implications. It may seem ironic, but this kind of writing might have been possible precisely because it was wartime.

Key Words: occupied Shanghai, Wen Zhai Dao, Gujin, prose writing, individual's mindset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10. 31.	2016. 11. 26.	2016. 11. 27.	2016. 12. 14.	2016. 12. 31.